



부마항쟁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 동안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유신철폐' 구호와 함께 시위가 시작되었다. 다음날 17일 부터 부산 지역 시민 계층으로 확산되어 18일, 19일에는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당시 박정희 유신 독재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과 창원 일원에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1979년 부마항쟁과 김재규 부장의 결단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는 오랫동안 별 의식 없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신대륙발견’이라는 주제로 서양사를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3세계 학자들은 “아니, 발견이라니? 무슨 발견? 콜럼버스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라고 지적하면서 유럽 강자중심의 침략사관, 자본주의 사관의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과 동시에 이등박문 피살 100주년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 안에 담겨진 서로 다른 의미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해 학술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 나치 독재 때 몸서리 쳤던 그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기에 그가 누구든 우상화하거나 또는 영웅시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학술모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인 특유의 냉정한 역사관으로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란 하나의 해석학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각에서 역사를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역사관을 지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17일 부마항쟁 30주년,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그리고 묘하게도 같은 날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며 그 생애를 마감시킨 30주년을 기념합니다.

오늘 저는 『희망세상』 가족들과 함께 부마항쟁의 과정과 김재규 부장의 행적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독재체제 동안 늘 살벌했지만 1979년은 더욱 두렵고 무서운 한해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4월 16일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우재 강사, 전창렬 교수 등 7명을 구속하고 7월에는 오원춘 안동 농민회원을 납치고문하고 또한 경찰은, 공장폐쇄로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여성노동자 120명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김경숙 양을 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신민당은 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10월 4일에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고 10월 9

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는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7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소불위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한 여성 노동자의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참으로 살벌했던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자 부산과 마산의 청년학생 시민 등은 분노하여 쫓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대학 휴교 조치를 단행했지만 부산, 마산 시민들은 계엄령을 반대하며 공화당 당사 앞에서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배석했던 차지철 경호실장은 “감보디아에서는 수백여 만 명을 쓸어버렸는데 그까짓 1~2백만 정도는 죽여버리면 됩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자유당 때에는 최인규, 곽영주 등이 발포 명령을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

겠다. 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김재규 부장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이 한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확신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혁명을 구상했고 이러한 물리적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박 대통령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백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겠다고 다짐하며 사적 관계를 넘어서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그는 차지철 실장과 박정희 대통령 대화 내용에 대해 눈감고 외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공동선을 위해 유신의 핵을 제거했습니다. 부마항쟁과 김재규 부장은 유신독재를 종식시킨 귀중한 한 짝입니다. 그의 유언, 마지막 구절을 되새기며 모두 함께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10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이호룡, 이종률, 황정욱, 현중철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파인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1979년 부마항쟁과
김재규 부장의 결단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탄압받는 민중과 함께한
한신대학교 수유캠퍼스 | 홍인기



14 특별기고
부마항쟁 30주년,
그 날을 다시 기억한다 | 차성환

20 기획연재 _ 민주시민교육 학습공동체
시민의 삶과 인문학 | 주건일

26 사료이야기
전교조의 꿈과 현실 | 여수갑

30 사협회 소식
서울민주주의포럼 _ 화보
현대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_ 화보
민주화운동 관련시설 탐방 _ 전남 영광 · 목포 · 해남지역



44 문화초대석
좌절과 실패를 희망으로
시인 이상국의 이야기 | 윤승일



50 게시판
부산민주공원
5·18기념재단

53 독자마당

